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전북지사보협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4일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해 '제8회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부안군과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김광수 부안군의회 이춘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인적 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키퍼스코리아 대표 김석중 강사의 주제강연, 부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보건소, 동절기 모기 유충 방제활동

고창군보건소가 내년 2월까지 경로당 정화조, 하수관, 오수관, 물웅덩이, 축사 밀집 지역, 배수로 등 모기유충 서식 예상지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모기 유충 방제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절기 모기 유충방제는 일정한 장소에만 산란하는 모기 특성을 이용해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게 된다.

겨울철 모기의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에 방제약을 살포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여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고창군은 군민들도 자발적으로 집주변 웅덩이, 배수로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고인물 없애기 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유충 서식지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실효성 있는 정책 · 대책 마련”

권익현 부안군수, 기후적응 정책 국회 토론회 참석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올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으로 선출된 권익현 군수는 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적응 대책과 더불어 지역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재)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박진한 부연구위원이 지역별 기후변화 추세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이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입법 아젠더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KDI 국가 기후위기적응센터장 신지영 좌장의 주제로 기후보건, 식량공급,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전문가가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후변화로 인



한 재난과 위기는 모두에게 올 수 있으나 피해는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므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자"며,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정책 정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한 초동대응 능력 배양에 나섰다.

‘바이러스 테러 막자’

정읍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 훈련 진행

정읍시가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한 초동대응 능력 배양에 나섰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을 살포하는 테러를 말한다.

소양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정확한 합동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황토현관역어울림센터에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정읍시 보건소와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육군 제8008 부대,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기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방식과 달리 실제 생물테러 발생상황을 가정 개인 보호복 착용의와 독소 다중 탐지카드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초동대응 요원들이 현장에서 검체를 진단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등 기관별 부여 임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는 역할 중심의 실습형 훈련으로 생물테러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최근 시민 생명 보호와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인재 · 우수기업 만남의 장... 정읍시 취업박람회

16개 기업 100여명 취업 연결... 구인·구직 열기 후끈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청년 지원 등 시민 일자리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24일 정읍체육관(실내체육관)에서 지역 내 우량기업과 구직자들 간 대면 만남의 장인 2022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과 지역 우수기업 간 직접 만남을 통해 구직자의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장에는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구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 1,000여 명이 방문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

또, 지역 내 우수 기업인 SK네슬리스와 다인시스, 하림 정읍공장, 대우전자부품 등 총 16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기업 홍보를 진행했다.

이밖에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지원센터, 첨단산업단지 연구기관, 여성새로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청년 지원 등 시민 일자리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하기센터 등 취업 관련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계층별 고용정책 등에 대해 홍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배움의 행복... 고창군 '평생학습 축제' 개최

고창군이 24일 오후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 학습자 및 강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고창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고창군 전역에서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학습 스토리 전시 및 250여점의 학습성과 작품 전시회를 메인으로 프로그램 홍보 체험 부스 운영, 평생학습 기념행사,

성인문해교육 시상식, 통합 수료식 등을 진행하며 군민들에게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생학습 기념행사는 평생학습동아리 '현악안상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고창군 교육정책 비전 및 평생학습 성과를 담은 동영상 시청, 성인문해교육 시상식, 수료식 등이 이루어져 군민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프로그램 홍보·체험행사로 백향과청만들기, 모양성등만들기, 천연염색 스탠실 체험 등 8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글을 읽고 쓰기 불편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혀 완성한 50여 점의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들은 '한글자 한글자'가 어르신들의 학습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호평을 받으며 관람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지역농업 선도 90명 농업리더 배출

고창군이 24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농업 리더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회의장 오표근 농촌개발대학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매년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과목을 선정해 왔으며, 금년에는 △저탄소쌀과 △인삼브랜드과 △복분자와 △토종농산물과 △멜론과 등 5개 과정으로 운영 전문강사의 이론 및 현장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선도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수는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주경야곡으로 이뤄낸 값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2,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